

제주도 방언의 존경접미사 연구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73년 11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어학교육전공(한국어교육분야)

김 귀 자

김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강 윤 호

강 윤 호



심사위원

박 창 해



이 종 립



김석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차 례

I. 서론	1
A. 연구 목적	1
B. 연구 범위	1
C. 연구 방법	1
II. 경어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A. 경어법의 정의	2
B. 경어법의 역사적 고찰	4
C. 현대 한국어 경어법	10
III. 제주도 방언	14
A. 제주방언의 일반적 특징	14
B. 제주방언의 존경 접미사	15
IV. 결론	29
참고문헌	30
부록	32
별 도	

논문개요

본 연구는 구조 언어학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제주도 방언 가운데서 존경 접미사의 형태와 배합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연구한 것이다.

1950 년도에 한국어 학계에서는, 한국어 경어법 — 15세기 한국어 존경 접미사 -시-, -^스-, -이-의 용법——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결과로서 논리적이고 보편 타당하다고 인정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경어법에 있어서, 존경법 -시-는 상위자의 행동·상태를 나타내는 용언에 개재되어 존경의 뜻을 표시하고, 겸양법 -^스-은 하위자의 행동·상태를 나타내는 용언에 개재되어 겸양의 뜻을 표시하며, 공손법 -이-는 화자(언어주체)의 종지형 용언에 개재되어 화자(언어주체)의 겸손을 표시한다.

현대 한국어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 위의 경어법은 그대로 쓰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존경 접미사가 제주도 방언에서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배합되어 있는가를 연구하여 그 특징을 알아 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존경 접미사의 형태와 배합

V	SX ₁	SX ₂	SX _{final1}	SX _{final2}
V root	- 님 -			
	- 우 -			
		- 수 -		
		- ㅁ ₂ -		
				- 마씀 -

2. 존경 접미사의 특징

- (1) 존경 접미사들은 오직 화자(언어주체)와 청자(언어대상) 사이에서만 나타난다.
- (2) 완성된 발화 문장의 끝에 -마씀을 더 첨가하여 존경의 뜻을 나타낸다.
- (3) 현대 한국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존경 접미사의 하나인 -시-는, 제주방언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 (4) 종결 접미사의 변화로 시제를 나타낸다.

A.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제주도 방언 가운데서 존경 접미사의 형태와 배합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찾아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

B. 연구 범위

자료는, 현재 제주도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방언) 가운데서 용언만을 취하였다. 따라서 존대어, 겸양어, 체언에 붙어 존경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C. 연구 방법

연구의 방법은 구조 언어학의 방법론에 따랐다.

1. 먼저 용언의 종지법 어미를 채집하고, 이것을 현대 한국어의 경어법 체계에 따라 네 종류——극존대·존대·비대·극비대——로 분류하였다.

2.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분류표를 수정·첨가·삭제하였다.

3. 새로 작성된 종지법 어미 분류표를 분석하여 존경의 뜻을 가진 형태들을 골라내고, 그 형태들의 종류·높이는 자리에 따라 분류하였다.

4.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 분류는 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Ⅱ. 경어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

A. 경어법의 정의

1. 한국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주어의 생략」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혹은 글을 읽을 때,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은, 용언의 어미가 생략된 주어에 호응하여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a. 어디 가니?

학교에 갑니다.

b. 어디 가십니까?

학교에 간다.

c. 어디 가십니까?

학교에 갑니다.

a에서, 묻는 화자는 연장자 혹은 상위자(본 연구에서의 용어는 상위자)이고, 답하는 화자는 연소자 혹은 하위자(본 연구에서의 용어는 하위자)이다. b에서, 묻는 화자는 하위자, 답하는 화자는 상위자이다. c에서, 묻는 화자와 답하는 화자는 동등 지위자이다. 이와 같이 화자(언어주체)와 청자(언어대상), 행동 주체와 행동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용언의 어미가 변화한다.

인간 사회는 신분·계급·지위·나이 등의 차이에 따라 상하·준비의 대립 관계가 인정된다. 이와같은 신분·계급·지위·나이 등

의 차이는 직업·권리의무·사회 참여는 물론 생활 양식·태도·의복 등등까지도 규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인간 사회의 상하·존비의 대립관계가 언어 생활에 반영되어, 그를 규제하는 것이 경어법이다. 다시 말하면, 상위자와 하위자와의 관계에서, 하위자는 상위자를 존기한 자로서 대우해야 한다. 이런 사회 규범을 언어로써 표현한 것이 경어법이다.¹⁾

하위자가 상위자를 존기한 자로서 대우하는 것은, 하위자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존경심 같은 심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언어 사회의 제도에 의한 것이다.

李崇寧은 경어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敬語法이란 言語社會의 한 契約이며 制度이며 規範인데, 이것은 社會制度(또는 家族制度)의 階層·身分·職位·長位の 識別을 위한 規範이 言語·生活에 反映된 것으로서 人間 對 人間の 上下·貴賤·親疎의 對立이 表現法에 나타난 것이다.”²⁾

2. 한국은 예로부터 임금과 신하, 양반과 상놈이란 신분과 계급이 뚜렷하게 있어 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 경어법도 매우 발달하였다.

1) 경어법에 관한 용어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절에서 다루겠다.

2) 李崇寧, “敬語法 研究”, 國語學研究(대구:螢雪出版社, 1972), p.406.

그러나 역사의 발전에 따른 인간 평등 사상, 자유 사상 등으로 경어법은 많이 쇠퇴해 졌으나, 아직도 일본어와 더불어 발달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B. 경어법의 역사적 고찰

경어법의 통시적 연구는 본 연구와 관련시켜, 용언에 접미사가 붙어 사용되는 경우만을 다루려고 한다.

시대구분은 15세기 이전, 15세기, 16세기 이후로 나누되, 이론적 연구를 위해 먼저 15세기를 중점으로 해서 다루고, 다음에 15세기 이전, 16세기 이후를 차례로 고찰하려 한다.

1. 15세기의 경어법

a. 15세기 당시 경어법이 얼마나 체계 정연하고 정확하게 쓰였는지는 훈민정음 창제 후의 쏟아져 나온 문헌에 관한 연구로 말미암아 국어학계에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15세기의 경어법은 화자(또는 필자)와 청자, 행동 주체와 행동의 관계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행동 주체와 행동의 관계에서, 상위자인 행동 주체에 호응하는 용언에는 반드시 -시-가 개재된다. 단 상위자인 행동 주체가 화자 자신인 경우에는 -시-가 개재되지 않는다.

둘째; 하위자인 행동 주체에 호응하는 용언에는 -습-이 개재된다. 그러나 화자(또는 필자)가 청자와 동등 지위자인 경우에는 -습-이 개재되지 않는다.

셋째; 화자(또는 필자)와 청자의 관계에서, 하위자인 언어주체에

호응하는 종지형 용언에는 -이-가 개재된다.

b. 본 연구에서는 -시-가 개재되는 경우를 존경법, -습-이 개재되는 경우를 겸양법, -히-가 개재되는 경우를 공손법이라 부르기로 한다.

c. 그런데 경어법에 관하여 학자마다 그 용어가 조금씩 다르므로, 이를 간추려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 름	경 어 법	존 경 법	겸 양 법	공 손 법
金 亨 奎	敬 讓 詞	尊 敬 接 尾 辭	謙 讓 接 尾 辭	謙 讓 終 結 語 尾
小 倉 進 平	謙 讓 法 · 尊 敬 法 的 助 動 詞	尊 敬 法	「습」系 的 謙 讓 法 的 助 動 詞	「이」系 的 謙 讓 法 的 助 動 詞
安 秉 禧	敬 語 法	主 體 尊 敬 法	主 體 謙 讓 法	相 對 尊 敬 法
梁 柱 東	×	尊 稱 助 動 詞	尊 稱 助 詞	敬 稱 終 止 助 詞
李 崇 寧	敬 語 法	尊 敬 法	謙 讓 法	恭 遜 法
李 珍 模	×	尊 稱 詞	「비」계통 謙 讓 詞	謙 讓 詞
全 在 寬	敬 讓 詞	「시」 敬 讓 詞	「습따위」 敬 讓 詞	「이」 敬 讓 詞
許 雄	尊 待 法 (눈 임 법)	主 體 尊 待 (주 체 눈 임)	客 體 尊 待 (객 체 눈 임)	相 對 尊 待 (상 대 눈 임)

d. 이들 존경 접미사들의 형태·역할·환경을 포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경어법 구분	존 경 법	접 양 법	공 손 법
형태소	-시-	-습-	-이-
이 형태	시, 샤	습, 즈습, 습	이, 쇼셔
환 경	상위자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용언에 개재됨	하위자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용언에 개재됨	화자의 종지형 용언에 개재됨
역 할	상위자를 높임	하위자를 낮춤	화자를 낮춤

e. 그러나 존경 접미사들이 실제로 문장에 쓰일 때에는 이중 삼중으로 겹쳐서 나타난다. 실제 문장을 예들어 살펴 보기로 한다.

(1) 闕耶 1 毗闕耶위 엇게에 올라부터샤 받즈분대 부테 구브
샤 바리로 바다시닐 毗闕耶 1 습掌하야 조차 깃스밤
헝더라.³⁾

부처의 행동 : 구브샤, 바다시닐

毗闕耶의 상태 : 깃스밤

闕耶의 행동 ; 받즈분

3) 金英培, 釈譜詳節 第十三・四注解, (서울: 一潮閣, 1972),
제 14 장 8 : 1, p.142.

(2) 내 부터씨 말스믈 흥승부티 「¹滄槃² 흥신 後에 劫다³ 용
 時節에 經과 袞⁴와 바리와를 내 다 가져다가 이 塔에
 녀허 뒷습다가 彌勒⁵이 나거시든 내야 받즈부리이다.」
 흥승부이다. 4)

내 행동; 흥승부티, 뒷습다가, 받즈부리이다
 흥승부이다.

부처의 행동; ¹滄槃² 흥신
 彌勒⁵의 행동; 나거시든

(3) 우연 흥시느니잇고 5)

(4) 尊者¹ 入滅² 흥 싫저귀 모로매 날드려 니르쇼셔 6)

이와 같이 존경 접미사들은, 언뜻 보기에 는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쓰여진 것 같다. 그러나 하나의 문장 안에서 화자(또는 필자)
 와 청자, 행위 주체와 행동의 관계에서 그 신분과 계급을 분명하
 게 표시하고 있다.

f. 그 실증을 위해, 존경 접미사들의 쓰인 예를 새로 발견된
 " 叢譜詳節 第十三・四 "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7)

4) Ibid., 제 14 장 31 : 2, p.189.

5) Ibid., 제 14 장 9 : 1, P.144.

6) Ibid., 제 14 장 6 : 1, P.138.

7) Ibid..

존 경 법		겸 양 법			공 손 법	
시	샤	습	습	중	이	쇼 셔
234	116	21	185	26	94	21
350		232			115	

2. 15세기 이전

향가·이두에서 보면 신라·고려시대의 존경 접미사들은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존경법 -시-는 「賜」로, 후기에는 「教(是)」, 극존대는 「白教是」로 표기되어 있다.

겸양법 -습-은 「白」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조 초기의 동사 「습」과 그 어원을 같이 한다.

공손법에 있어서 -이-는 「音」으로, -쇼셔-는 「賜立」 「受勢·少時」로 표기되어 있다.

3. 16세기 이후

15세기의 경어법은 16세기 이후부터 점차 변화하여 오늘날의 현대 경어법 체계를 이루었다.

존경법 -시-는 15세기 이후에도 별로 변화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겸양법 -습-은 17세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18세기에 -음·삼·잡-으로 변화 되었다가 18세기말 이후는 공손법 -이-와

섞이어 -버·옵나이-로 되었고, 현재는 -버·습니·옵니-로 쓰이고 있다.

공손법 -이-는 17세기부터 -이-와 -이-로 쓰이다가 18세기 말부터 겸양법과 섞이어 쓰이기도 하고, 일부는 소멸되어 버리기도 했다. -쇼셔-는 18세기 말부터 -소서-로 바뀌었다.

경어법의 변화 과정을 알기 쉽게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시대 \ 경어법	존 경 법		겸 양 법			공 손 법	
신라·고려 시대	賜	白 敎 是	白			音	賜 立
15 C	시	습 시	습	습	즈 습	이	쇼 셔
16 C	시	습 시	습	습	즈 습	이	쇼 셔
17 C	시	옵 시	습	옵	즈 습	이, 이	쇼 셔
18C 말	시	압 습 시	삼,	옵,	잡	이	소서
19C 현	시	압 습	(자옵, 사옵, 사오, 자오, 버, 습니, 습니				소서

C. 현대 한국어 경어법

현대 한국어의 경어법은, 어근에 접미사가 덧붙어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존대어·겸양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간략하게 포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⁸⁾

1. 어근에 접미사 (조사 또는 보조어간) 가 붙는 경우

어 근	접 미 사	예
N	- 계	할아버지께,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 께 서	아버지께서, 외삼촌께서
	- 님	선생님, 사모님, 사장님
	- 씨	제수씨, 형씨, 철수씨, 아가씨
V	- 시	가신다, 보신다, 오신다
	- 버	잡니다, 뵙니다, 먹읍니다

N : 명사

V : 동사

8) 강운호, 정수문법, (서울 : 지림출판사, 1970), pp.69 ~ 71.

2. 어근에 접미사 (종지법 어미) 를 사용하는 경우

형 / 종지법	어 근	어 미	예
서술형	V	- 나이다 - 읍니다 - 으오	하나이다 합니다 하오
의문형	V	- 나이까? - 읍니까? - 으오?	하나이까? 합니까? 하오?
명령형	V	- 으소서 - 읍시오 - 으오	하소서 합시오 하오
칭유형	V	- 읍시다요 - 읍시다	합시다요 합시다
약속형	V	- 으오리다 - 으리다	하오리다 하리다
감탄형	V	- 읍니다그려 - 는구료	합니다그려 하는구려 (료)

3. 존대어를 사용하는 경우

예 사 어	존 대 어
자 다	주 무 시 다
죽 다	돌 아 가 시 다
시 키 다	분 부 하 시 다
먹 다	잡 수 시 다
있 다	계 시 다
밥	진 지
이 름	존 함, 성 함
병	병 환
남 의 어 머 니	자 당
남 의 딸	영 애
그 남 자	그 분

4. 겸양어를 사용하는 경우

예 사 어	겸 양 어
물 다	여 쭙 다
주 다	드리다, 올리다
만 나 보 다	뵈다, 뵈옵다

예 사 어	겸 양 어
내 주 다	바 치 다
데 리 다	모시다, 받들다
나	저
아 버 지	아 비
말	말 씬
아 내	우 처

이와같이 현대 한국어의 경어법은 복잡하긴 하나 매우 발달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Ⅲ. 제주도 방언

A. 제주 방언의 일반적 특징

제주도 방언에 관한 연구 논문은 부분적으로 발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주도 방언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지 못한 채로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주도 방언의 특징들도 단편적인 열거에 지나지 않음을 말하여 둔다.

1. 「탐라」라는 지명의 연구에서 보면 제주도 방언의 근원을 고구려어에 들 수 있다. 1)
2. 고어가 많이 보전되어 있다.
3. Hiatus 사이에 -o- (ㅇ) 음이 삽입된다. 2)
4. 몽고어 영향의 흔적이 남아 있다.
5. 종지법 어미의 변화로 시제를 나타낸다.
6. 완성된 발화 문장 뒤에 어미를 더 첨가하여 강조·독촉·존경·동의를 뜻을 나타낸다.
7. 존경어·겸양어의 쓰임이 드물게 나타난다.
8. 존경 접미사 -시-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

1) 玄平孝 외 2인, 「耽羅의 學芸·言語·宗教의 研究」, (제주대학 論文集, 제3집 1971), pp. 17 ~ 27.

2) 金文奎, 「耽羅 方言試攷」, (圓光大學 論文集, 제2집, 1960), pp. 77 ~ 158.

이상 열거한 특징들 가운데는 연구의 결과로 증명된 것도 있고 (1, 2, 3),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본 연구의 결과로써 얻어진 것 (5, 6)도 있다.

B. 제주도 방언의 존경 접미사

제주도 방언의 용언 어미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어법의 공식을 얻었다. 3)

1. Vroot + -ㅂ- / -우- + SX

2. Vroot + $\left[\begin{array}{l} -ㅁ- \\ -ㅅㅅ- \\ -ㅋ-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수- \\ -우- \end{array} \right] + SX$

3. Vroot + SX + -마씀

공식 1은 용언의 어근에 -ㅂ- 또는 -우-가 붙어서 존경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공식 2는 용언의 어근에 -ㅁ·ㅅㅅ- 다음에 -수-가 붙어서 존경을 나타내는 경우와, -ㅋ- 다음에 -우-가 붙어서 존경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공식 3은 일단 완성된 발화 문장의 맨 끝에 -마씀이 덧붙어서

3) 부호는 편의상 다음과 같은 것들을 표시한다.

Vroot : 용언의 어근

- - : 어간을 이루는 접미사

SX : 종지법으로 쓰이는 접미사

{ } :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는 이형태

+ : 용언의 어근과 접미사들의 연결



존경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연구자가 조사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의 하나는, 존경 접미사 -시-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존경 접미사들을 고찰하기로 한다.

1. Vroot + -ㅂ- / -우- + SX

이 공식은 Vroot + -ㅂ- + SX와 Vroot + -우- + SX로 나누어진다.

a. Vroot + -ㅂ- + SX

용언의 어근에 -ㅂ-이 붙어서 존경의 뜻을 나타낸다.

-ㅂ- 다음에 올 수 있는 종결 접미사는 -네다, -네까, -씨-쥬 등 네 종류가 있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Vroot +	{	-네다 (서술형)
		-네까 (의문형)
		-씨 (명령형)
		-쥬 (칭유형)

-네다, -네까는 일반적이고 관념적인 현재형이다. 현대 한국어의 현재형 「-한다」와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르다. 즉 -네다, -네까는, 기존의 사실 혹은 습관적인 사실의 서술에만 쓰이고, 현재 진행의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을 나타낼 때는 -ㅁ-이 사용된다.

동사 온다(말하다), 가다(去), 있다(있다)를 예로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돋읍네다	갑네다	십네다
돋읍네까	갑네까	십네까
돋읍써	갑써	십써
돋읍쥬	갑쥬	십쥬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몇 개의 어휘에 -시-가 개재되기도 한다.

(1) 청자(언어대상)가 제주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육지인(陸地人)⁴이라는 사실을, 화자(언어주체)가 확실히 의식할 때

(2) 청자(언어대상)가 제주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청자의 생활권이 화자의 생활권과 다르다는 사실을 화자가 확실하게 의식할 때

이런 경우, 화자(언어주체)는 청자(언어대상)의 행동·상태에 -시-를 개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읊씨는 오십씨로, 받읍씨는 받으십씨로 말하여 진다.

그런데 이런 경우의 -시- 개재는 아주 의식적인 언어 행동이기 때문에 혼란이 뒤따르는 게 보통이다.

b. Vroot + -우- + SX

용언의 어근에 -우-가 붙어서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Vroot는 명사에 -이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들이다.

4) 제주 주민의 용어로는 "육짓 사람"이다.

-우- 다음에 오는 종결 접미사로는 -다, -과, 가 있다.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NV + -우- + \begin{cases} -다 (서술형)^5 \\ -과 (의문형) \end{cases}$$

위의 -과는 [과, 파, 광, 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점질이우다 (김입니다)

점질이우과 (김입니까)

바당이우다 (바다입니다)

바당이우과 (바다입니까)

$$2. Vroot + \begin{pmatrix} -ㅁ- \\ -ㅅㅅ- \\ -ㅋ- \end{pmatrix} \begin{matrix} + -수- \\ + -우- \end{matrix} + SX$$

용언의 어근에 ; -ㅁ-, -ㅅㅅ-이 오고 다음에 -수-가 붙어 존경을 표시하는 경우와, -ㅋ-가 오고 다음에 -우-가 붙어 존경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위의 -ㅁ-, -ㅅㅅ-, -ㅋ-은 모두 시제를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ㅁ-은 현재 진행, -ㅅㅅ-은 과거, -ㅋ-은 미래를 나타

5) NV는 Vroot로서 명사에 -이다가 붙어서 된 것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낸다.

이를 나누어서 고찰하기로 한다.

$$a. \text{Vroot} + \begin{bmatrix} \text{---} \\ \text{---} \\ \text{---} \end{bmatrix} + \text{---수---} + \text{SX}$$

용언의 어근 다음에 ---, ---이 오는 경우는 다음에 반
드시 ---가 붙어 존경을 나타낸다.

--- 다음에 오는 종결 접미사는 ---, ---이다.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text{Vroot} + \begin{bmatrix} \text{---} \\ \text{---} \\ \text{---} \end{bmatrix} + \text{---수---} + \begin{cases} \text{---다 (서술형)} \\ \text{---과 (의문형)} \end{cases}$$

동사 묻다 (말하다), 가다 (去) 를 예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묻습수다	감수다
묻습수과	감수과
묻아(았)수다	가(갔)수다
묻아(았)수과	가(갔)수과

실제 언어 생활에서, ---은 묵음화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수다에 관하여 이미 알려져 있는 학설을 고찰해 보
려고 한다.

小倉進平은 -수다를 겸양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 [-su -da] 最高の謙讓の意をあらはす時, 答の場合に
 用ひられる語尾で, 標準語 [ham-ni-da] (致します) .
 [kam-ni-da] (参ります) 等の [-m-ni-da] に当る
 ものである. . 6)

金文奎는 「시우다 > 수다」로 보고 있다. 7)

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잡았수다 = 잡 + 았 (과거형) + 시 (존경 보조어간) 우다
 (존경 서술어미) .

b. Vroot + { -ㄱ- } + -우- + SX

용언의 어근에 -ㄱ-가 오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반드시
 -우-가 붙어 존경을 나타낸다.

-우- 다음에 오는 종결 접미사는 -다, -과이다.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text{Vroot} + \{ -ㄱ- \} + -우- + \begin{cases} -다 (서술형) \\ -과 (의문형) \end{cases}$$

6)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 下卷, (東京 : 岩波書店 昭和
 19), p.472 .

7) 金文奎, 「耽羅方言試攷」 圓光大學 論文集 제 2 집 (전북 :
 1960), p.139 .

준다 (말하다), 지시다 (짓다 : 作), 쥘다 (깊다) 를 예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쥘으쿠다	지시쿠다	지프쿠다
쥘으쿠과	지시쿠과	지프쿠과

특히 의문형 종결 접미사 -과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유성음으로 발음된다.

3. Vroot + SX + -마씀

이것은 Vroot + SX 만으로 발화 문장이 일단 완성되는데, 거기다가 -마씀을 더 첨가해서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Vroot + SX로 끝나는 발화문장의 종결 접미사는 다시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SX 다음에 -마씀이 붙을 수 있는 것과, 다른 하나는 SX 다음에 -마씀이 올 수 없는 것들이다.

두번째의, -마씀이 붙지 않는 경우의 종결 접미사들은 모두 극비대이다. 8)

제주 방언에서는 시제 접미사 -ㅁ-, -ㅅㅅ-, -ㄱ-이 동사어근 다음에 붙어서 시간을 나타내는 방법 이외에 종결 접미사의 변화로써 시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특징을 고려하여 Vroot + SX + -마씀의 공식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Vroot + \left[\begin{array}{c} \text{ㅁ} \\ \text{ㅅㅅ} \end{array} \right] + SX + -마씀$$

8) 극비대의 접미사는 다음 항에서 고찰한다.

Vroot + { -ㄱ- } + SX + -마씀

Vroot + SX + -마씀

이것을 차례로 고찰하기로 한다.

a. Vroot + $\begin{bmatrix} -ㅁ- \\ -ㅅㅅ- \end{bmatrix}$ + SX + -마씀

-ㅁ-, -ㅅㅅ- 다음에 오는 종결 접미사는 -씨, -젠, -쥬가 있다.

-씨, -젠은 Intonation의 변화에 따라 서술형·의문형으로 나누인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Vroot + $\begin{bmatrix} -ㅁ- \\ -ㅅㅅ- \end{bmatrix}$ +	{	-서 + -마씀 (서술형)
	-	-서 + -마씀 ↗ (의문형)
	-	-젠 + -마씀 (서술형)
	-	-젠 + -마씀 ↗ (의문형)
	-	-쥬 + -마씀 (서술형)

SX만으로 문장 발화가 끝나는 경우에, ↗은 SX에 붙는다.

준다(말하다)를 예로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준다ㅁ서마씀

준다ㅁ서마씀 ↗

준다(았)서마씀

준다(았)서마씀 ↗

준다ㅁ젠마씀

준다ㅁ젠마씀 ↗

폴아(았)젠마씀

폴아(았)젠마씀 ↗

폴암쥬마씀

폴아(았)쥬마씀

b. Vroot + | -ㄱ- | + SX + -마씀

-ㄱ- 다음에 오는 종결 접미사는 -라, -아가 있다.

포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Vroot + -ㄱ- +	{	-라+ -마씀 (서술형)
		-라+ -마씀 ↗ (의문형)
		-아+ -마씀 ↗ (의문형)

→ 이 붙는 방법은 위와 같다.

폰다, 먹다를 예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폴으크라마씀 먹(으)크라마씀

폴으크라마씀 ↗ 먹(으)크라마씀 ↗

폴으카마씀 ↗ 먹(으)카마씀 ↗

c. Vroot + SX + -마씀

여기에서의 Vroot는 동사·형용사로서의 용언과 명사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을 포함한다. 동사에 붙는 종결 접미사는 시제를 포함한다.

NV 다음에 오는 접미사는 -라, -쥬, -ㅇ/ㄴ게, -ㅇ/ㄴ가 등이 있다. -라는 Intonation의 변화에 따라 서술형·의문형으로 구분되고, 그 쓰이는 방법은 위와 같다.

NV 이외의 Vroot 다음에 오는 접미사로는 -ㄴ, -아/어, -젠

-쥬가 있다. -오/ㄴ은 과거, -아/어는 현재, -젠은 미래 (특히 의지미래)를 나타낸다.

이들 -ㄴ, -아/어, -젠은 Intonation의 변화에 따라 서술형 의문형으로 나누이고, 그 쓰이는 방법은 위와 같다.

-쥬는 NV 다음에 오면 서술형, NV 이외의 Vroot 다음에 오면 청유형이 된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NV +	{	-라 + -마씀 (서술형)
		-라 + -마씀 ↗ (의문형)
		-쥬 + -마씀 (서술형)
		-오/ㄴ계 + 마씀 (서술형)
		-오/ㄴ가 + 마씀 ↗ (의문형)
Vroot +	{	-아/어 + -마씀 (서술형)
		-아/어 + -마씀 ↗ (의문형)
		-ㄴ + -마씀 (서술형)
		-ㄴ + -마씀 ↗ (의문형)
		-젠 + -마씀 (서술형)
		-젠 + -마씀 ↗ (의문형)
		-쥬 + -마씀 (청유형)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결질이라마씀

점질이라마씀 →

점질이쥬마씀

점질인(잉)게마씀

점질인가마씀 →

궤아마씀(말합니다)

궤아마씀(말합니까)

궤안마씀

궤안마씀 →

궤젠마씀

궤젠마씀 →

궤 쥬

d. -마씀의 이형태로 -양/예가 있다. -양/예는 존경의 뜻 외에 동의를 구하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양/예는 단정적인 서술·의문형에는 쓰이지 않는다.

또한 -양/예는 Vroot + SX + -마씀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존경 접미사가 붙는 모든 발화 문장의 끝에 붙는다. 그 이유는 동의를 구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정적인 서술·의문형의 종결 접미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서술형 : -니베다, -멘, -크라

의문형 : -니베까, -우과, -수과, -라, -젠, -어/아, -젠,

-크라

원칙으로 말하면, -마씀은 -ㅂ-, -우-, -수-가 개재되는 경우는 쓰이지 않는 것이나, -양/예와 함께 -ㅂ-, -우-, -수-가 개재되는 경우에도 가끔 쓰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마씀은 SX 다음에 붙어 존경의 뜻을 나타내고, 또한 -ㅂ-, -수-, -우-가 개재된 경우에도 종결 접미사에 덧붙여 강조, 독촉의 뜻을 더한다.

4. 극비대의 종결 접미사

존경의 뜻을 가지지 않는 극비대의 종결 접미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Vroot + \begin{bmatrix} -ㅁ- \\ -ㅅㅅ- \\ -ㅋ- \end{bmatrix} + SX$$

$$Vroot + SX$$

이를 차례로 고찰하기로 한다.

$$a. Vroot + \begin{bmatrix} -ㅁ- \\ -ㅅㅅ- \\ -ㅋ- \end{bmatrix} + SX$$

여기에 올 수 있는 접미사들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Vroot + \begin{bmatrix} -ㅁ- \\ -ㅅㅅ- \end{bmatrix} + \begin{matrix} \begin{bmatrix} -ㅈ- \\ -네- \\ -디야- \end{bmatrix} & \begin{matrix} \text{>} \\ \text{>} \end{matrix} & \begin{matrix} \text{(서술형)} \\ \text{(의문형)} \end{matrix} \\ \begin{bmatrix} -나- \\ -냐- \\ -디- \end{bmatrix} & \begin{matrix} \text{>} \\ \text{>} \end{matrix} & \begin{matrix} \text{(의문형)} \\ \text{(의문형)} \end{matrix} \end{matrix}$$

Vroot + { -ㄹ- } + $\left\{ \begin{array}{l} -이여 \\ -냐 \end{array} \right\}$ (서술형)
 (의문형)

b. Vroot + SX

Vroot + $\left\{ \begin{array}{l} -여 \\ -가 \\ -메 \\ -과라 \\ -ㄴ다 \\ -느냐 \\ -심 \\ -라 \\ -게 \end{array} \right\}$ (서술형)
 (의문형)
 (서술형)
 (서술형, 과거)
 (서술형 + 하다 + 가 붙는 어휘에 한함)
 (의문형)
 (명령형)
 (명령형)
 (청유형)

c. 존경의 뜻을 가지지 않는, 즉 극비대의 종결 접미사 다음에 덧붙는 형태로 -이가 있다.

-이는 -양/예와 같이 동의를 구하는 뜻을 가진다. 따라서 -양/예는 보통 비대 이상의 종결 접미사에 붙어 존경·동의를 뜻을 나타내고, -이는 극비대에 붙어 동의를 뜻을 나타낸다.

5. 이상에서 고찰한 존경 접미사들은 모두 화자(언어주체)와 청자(언어대상)의 관계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발화 문장의 종지법에서만 쓰인다.

6. 종결 접미사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것 외로,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그 수가 약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7. 위에 고찰한 제주 방언의 증결 접미사의 형태: 배합을 알기
쉽게 표로 보이던 ~~부류~~_{변동} 1 과 같다.

연구의 중점인 존경 접미사만을 간추려 보이던 ~~부류~~_{변동} 2 와 같다

그 외의 극비대 접미사는 ~~부류~~_{변동} 3 에 모아 놓았다.

IV . 결 론

이상의 존경 접미사 연구에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A. 존경 접미사들은 오직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만 나타난다.
- B. 완성된 발화 문장의 끝에 -마음을 더 첨가하여 존경의 뜻을 나타낸다.
- C. 현대 한국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존경 접미사 -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설령 쓰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청자의 신분에 대한 확실한 의식이 있는 경우이다.
- D. 종결 접미사의 변화로 시제를 나타낸다.
- E. 어원학의 입장에서 연구한다면, 존경 접미사 -수-는 -시-와 -우-로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존경의 뜻으로는 -우-만이 쓰이는 것으로 증명될 것 같다.

참 고 문 헌

- 강 윤 호 : 정수문법 , 서울 : 지림출판사, 1970.
- 金 大 煥 : 社会学 , 서울 : 法文社, 1971.
- 金 文 奎 : " 耽羅方言試攷 " , 圓光大学 論文集 , 제 2 집 , 1960.
- 金 榮 敦 : " 제주 방언의 어미 활용 " , 한글 119, 120, 122 호,
서울 : 한글학회, 1957.
- 金 英 培 : 積譜詳節 第十三。四 注解 , 서울 : 一潮閣, 1972.
- 金 亨 奎 : 国語史 研究 , 서울 : 一潮閣, 1963.
- 申 昌 淳 : " 尊待語論 " , 한글 133 호 , 서울 : 한글학회, 1964.
- 小倉進平 : 朝鮮語 方言의 研究, 下卷, 東京 : 岩波書店, 昭和 19. (1944)
- 安 秉 禧 : " 主体謙讓法の 接尾辭 「-슴-」에 對하여 " , 震檀學報
No.22 , 서울 : 震檀學會, 1961.
- 李 崇 寧 : " 濟州島 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 , ' 東方學志 ' 제 3 집,
서울 :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57.
- 中世國語文法 - 15世紀語를 主로 하여 - ,
서울 : 乙酉文化社, 1961.
- 國語學 研究 , 대구 : 螢雪出版社, 1972.
- 全 在 寬 : " 「슴따위」 敬讓詞散攷 " , 慶北大學校 論文集 No.2,
1958.
- 許 雄 : 中世國語研究 , 서울 : 正音社, 1963.
- 옛 말본 , 서울 : 과학사, 1969.

玄平孝의 2인 : " 耽羅의 學芸。言語。宗教의 研究 " , 濟州大學
論文集 제 3 집, 1971.

Gleason, H. A. Jr,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
uistics, Rev. ed. New York : 1966.

별 표

- 별표 1 종결 접미사의 형태와 배합 33
- 별표 2 준경 접미사의 형태와 배합 34
- 별표 3 극비대 접미사의 형태와 배합 35

부록 1. 종결 접미사의 형태와 배합
 변동

V	SX ₁	SX ₂	SX final ₁				SX final ₂	비 고
			서	의	명	칭		
NV	ㄹ-우-		-다	-파				
			-라	-라			양/예	
			-쥬 -으/어 -으/어가	-마씀				
Vroot	ㄹ-뵤-		-네다	-네까	-씨			
						-쥬	양/예	
		ㄹ-수-	-다	-파				
	ㄹ-ㅁ-		-서	-서			-마씀	
			-젠	-젠				
			-쥬					
	ㄹ-ㅅ-		-찌					
			-네	-디아				-이
				-나				의문사대동
				-디				
		ㄹ-우 ₂ -	-다	-파				
			-라	-라			양/예	
	ㄹ-ㅋ-		-아	-아			-마씀	
			-오					의문사대동
				-이여				-이
				-냐				관사대동
			-멘	-멘				
			-젠	-젠				
			-ㄴ	-ㄴ				
			-아/어	-아/어			-마씀	양/예
				-아/어	-아/어			
			-쥬					-쥬
		※	-메					
			-니다					하타의경우에만
			-파라					-이
			-나	-느냐	-심			
				-라	-게			

ㄱ 안에 든 형태가 존경 접미사이다,

부록 2 ~~명문~~ 존경 접미사의 형태와 배합

V	SX ₁	SX ₂	SX final ₁				SX final ₂
			서	의	명	칭	
Vroot	- ㅂ -		- 네다	- 네까	- 씨	- 쥬	- 마씀
	(NV) - 우 -		- 다	- 꺾			
	- ㅁ - - ㅅㅅ -	- 수 -	- 다				
	- ㅋ -	- 우2 -		- 꺾			
	- ㅁ -		- 서	- 서			
	- ㅅㅅ -		- 쟈	- 쟈			
			- 쥬				
	- ㅋ -		- 라	- 라	- 아	- 오	
			- 라	- 라			
	(NV)		- 쥬	- 이/네	- 이/까		
		- 멘	- 멘				
		- 쟈	- 쟈				
		- ㄴ	- ㄴ				
		- 어아	- 어아	- 어아			
		- 쥬			- 쥬		

부록 3 ~~부록~~ 3 극비대 접미사의 형태와 배합
~~부록~~ 3

V	SX ₁	SX ₂	SX final			
			서	의	병	칭
Vroot	(NV)		-여	-가		
	-ㅁ-		-찌 -네	-디아 -나샤 -디		
	-ㄴ-		-이여	-냐		
			-때 -과라 -나 -나다	-느냐	-심 -라	-게

ABSTRACT

In this dissertation, the writer analyzes the CHE-JU dialect's honorific suffixes of ^{the} Korean language from the view of the structural linguistic methodology, emphasizing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CHE-JU dialect and showing the combination pattern of the honorific suffixes of the CHE-JU dialect.

In 1950, in the field of the Korean linguistics, there were much debates concerning the honorific forms of the Middle Korean language such as - si -, - s^hp - and * -ŋi-.

As the result of the debates, there comes out the logical, universal and appropriate conclusion as follows.

In the honorific of the Korean language, lying between the predicatives expressing the behavior and condition of the superior, the suffix of respective form -si- expresses the meaning of respect.

And lying between the predicatives expressing the behavior and condition of the subordinate, the suffix of modestic form, -s^hp- expresses the meaning of modesty.

And lying between the predicatives that lie in the end of

the sentence, the suffix of courteous form, -bi- expresses the courtesy of the speaker.

In the modern Korean language, there are a little changes in the honorific form, but the above honorifics are used as ever.

In this research, we have studied how such a honorific suffixes are combined by certain patterns in CHE-JU dialect, and stud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E-JU dialect.

We have summarized the above as follows.

1. The pattern and combination of the honorific suffixes

V	SX ₁	SX ₂	SX final ₁	SX final ₂
V root	-P-			
	-U ₁ -			
		-SU-		
		-U ₂ -		
				-massim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norific suffixes.

- (1) It comes out between a speaker and a hearer.
- (2) It expresses the meaning of respect, adding

-massim- to the end of the complete utterance sentence.

- (3) It expresses the tense by it's change.
- (4) One of the honorific suffixes, -si- widely used in the mordern Korean language, is hardly used in the CHE-JU dialect.